

80년 5월 데자뷰... 계엄 공포에 휩싸인 '광주의 밤'

광주 학살 겪은 시민들, 국회 강제진입 계엄군 보며 또다시 트라우마 "피땀 흘려 일군 민주주의 파괴 행위 광주시민이 나서 강력 규탄할 것"

광주 시민들은 3일 밤 10시 30분께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공포의 밤을 보냈다.

5·18 광주 학살 사건을 겪은 광주 시민들에게 '계엄'이라는 단어는 깊은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으로 강제 진입하는 영상이 유포되자, 1980년 전두환 정권의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 계엄군이 광주 시내로 쳐들어오던 장면이 겹쳐 보였다며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경험했다는 이도 적지 않았다. 이른바 '데자뷰' (기시감)다.

1979년 10·26사건 이후 비상계엄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내려졌고 이후 전두환이 12·12 군사 반란 이후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휴교령이 내려지자 전남대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한 것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가 된 문제학 역사의 어머니 김길자(85)씨는 "계엄령" 문구를 보자마자 1980년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놀라서 TV에서 눈을 땔 수 없었다"며 "국회로 침투하려는 계엄군을 시민들이

'계엄 해제'를 연호하며 막아서고 있는 장면은 마치 1980년 광주에서 학생들이 밀려들어오는 계엄군을 스크럼을 짜 막아서던 장면 같았다"고 했다.

5·18 당시 계엄군의 흉탄에 아들을 떠나보냈던 김씨에게 '계엄령'은 평생의 한이자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최근 소설 '소년이 온다'가 노벨상을 등에 업고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조금이나마 아픈 마음을 위로받고 있었는데, 기뻐할 새도 없이 정부가 나서서 악몽을 되살린 꼴이 됐다.

김씨는 "요즘 시대에 1980년대 방식으로 시민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다"며 "무책임하게 계엄령을 내린 주모자를 지팡이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호소했다.

5·18을 직접 겪었던 당사자들은 공포감을 넘어 ' 분노'를 참기 힘들었다고 했다.

이지현(73) 5·18부상자동지회 초대회장은 "계엄령 소식을 들었을 땐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거짓말인 줄 알았다. 2024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현 정부가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는 모습

을 자주 접해서 그런지, 흑사나 44년 전처럼 유혈 사태가 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돼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국민을 진압하는 수단으로 계엄법을 악용해 검박하고 있으니, 5·18 피로 새긴 민주주의를 저버린 것 같아 화가 났다"며 "정부 말대로 최근에 치안이나 국정 운영이 혼란스럽거나 위협을 받은 일이 어디 있었는가. 어떻게 명분도 없이 자기 안위만을 위해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5·18 당시 시민군 기동타격대로 활동했던 김태찬(63)씨는 "계엄군이 무장을 하고 거리에 나서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1980년 그 모습과 어찌나 똑같던지, 또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지는 않았지만 밤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광주 시민들이 피땀흘려 일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민사회를 공멸하게 하는 행위다. 광주 시민들이 나서서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5·18로 계엄군에 피해를 입은 직접 당사자뿐 아니라 5·18 당시 광주에 있었던 광주시민도, 5·18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도 충격을 받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광주시민 노모(여·62)씨는 "계엄"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1980년 당시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도청 앞 분수대에서 다 함께 모



1980년 5월 16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앞에서 전남대학생과 시민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였던 것, 상무관에서 52번째 관이 들어오던 것, 집에 숨어들어온 대학생들을 숨겨주고 어머니들이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건네주던 것 등이 생생히 떠올랐다"며 "그 날이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닐지, 몸이 벌써 떨려서 새벽 2시 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가결될 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광주에서 자영업 등 일을 하고 있는 이관영

(32)씨는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내일 일을 못 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생계가 막막하기도 하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하루아침에 앗아간다는 것이 가당카나 한 일인지 눈앞이 캄캄해졌다"며 "비록 5·18을 경험해 본 적은 없는 세대지만,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의 감정을 느낀 것만 같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kwangju.co.kr>



광주지역 8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국민행동'이 4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지역사회 분노... 윤석열 퇴진 대규모 집회

"현정우린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구속하라!"

광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노동계가 윤 대통령 퇴진·구속을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4일 오후 7시께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5·18민주광장에 모여 대규모 시국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 추산 총 1300여명이 모였다. 집회 부스에서는 핫팩과 광주일보 호외 신문 등을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시민들은 '윤석열 퇴진'과 '현정우린 민주주의

파괴'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광장 한가운데로 나섰다. 이날 현장에서는 "국회는 윤석열 탄핵을 즉각 추진하라", "광주시민 총궐기로 윤석열 정권 타도하자" 등의 구호가 봇물을 이뤘다.

서재준(64·남구 봉선동)씨는 "1980년 당시 시위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길에 계엄군이 무서워 숨었던 미안함에 오늘은 광장으로 나왔다"면서 "윤 대통령이 광주가 만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5·18 당시 중학교 2학년생이었던 한경오(60)씨는 "5·18때 친구가 실종되고 친구 누나는

숨진 아픔이 있다"며 "계엄발표 후 광주가 또 다시 타깃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 밤새 겁이 났다. 다시는 군인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현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조선대 역사문화학과 대학생 전재선(25)씨는 후배 박철안(20), 김대원(20)씨와 함께 광장을 찾았다. 전씨는 "광주에서 역사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행동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며 "현정을 유린한 윤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김대원 기자 kdi@장혜원 기자 hey1@>

지역 정치권 "윤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

5개 시·도지사 하야 촉구 성명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을 향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즉시 퇴진' 뿐"이라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날 성명에는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라며 "지난밤 대통령의 실책한 '쿠데타 시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80년 5월엔 목숨을 걸고 전두환 군부 쿠데타에 맞섰고 박근혜 정권 당시엔 촛불을 들어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민주시민들이 지난밤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또 한 번 '쿠데타 시도'를 막아냈다"며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이 대한민국 민주화로 승화된 것처럼 지난밤의 위기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도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얻어진 자랑스러운 소중한 가치인데,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계엄군의 총부리를 겨누는 행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전국의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71명이 가입한 단체로, 광주·전남에서는 이날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광주·전남지역 광역 및 기초의원들도 비상계엄령 선포를 일제히 비판했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과 전남도의회 민주당·진보당·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고 법적 처벌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1980년 5월 비상계엄에 광주의 피와 눈물을 먹고 자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6월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까지 이어지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중의 역사를 만들었다"면서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에 광주시민과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소망한다"고 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이럴 때일수록 교직원들이 비상한 각오로 교육활동에 임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사 운영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힘을 쏟아 달라"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o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평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염기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원인더스트리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기업부장상 (모범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청장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효율농부 농가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업체사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원인더스트리

Headquarter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증양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공고)

주식회사 신용정보(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신용정보(이하 "을"이라 함)는 각각 2024년 12월 02일 입사주주의 결의로 상호 제333022 규정에 따라 "갑"의 재산(인합)의 일부인 전기공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법적으로 "갑"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갑"의 분할된 전기공사업의 재산, 부채 등 "갑"의 전기공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을"이 승계하여 상법제 530조의 제정의 위키 분할된 재산(신용정보)으로 인하고 "을"은 승계받은 총채산(인합)의 부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개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회고합니다.

2024년 12월 5일

분할합병대상 : 전기공사업 (광주-00639호)

"갑" 주식회사 신용정보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279번길 12-1, 1층(충성동)
대표이사 최원수

"을" 주식회사 신용정보
전라남도 곡성읍 일면 매월매평길 4
대표이사 서은희

72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先州日報

• 지역안내 •

북 구	• 통 266-1920	• 문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222-8171
	• 영 571-7698	• 오 266-7801
	• 용 433-1503	• 동 433-1503
동 구	• 남 673-6836	• 동 222-9054
	• 동 부 225-6001	• 동 222-9054
	• 통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051-1833
	• 통 673-6836	• 송 675-6605
	• 진 671-7276	
서 구	• 광 382-5788	• 상 부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376-7153
	• 치 376-6511	• 통 603-0311
	• 화 369-1625	
광산구	• 온 952-1687	• 월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955-0451
	• 광 944-0444	